

# 진도군, 호주에 1백만 달러 농수산물 수출 협약 체결

### 호주 현지 (주)마이홈푸드와 입점판매 협약 체결 진도 꽃게, 곱창김, 젓갈, 흑미, 조미김 등 수출

진도군이 4일 호주 현지에서 마이홈푸드(대표 리처드 김)와 진도 농수산물 1백만 달러 입점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호주의 식품 유통업체인 마이홈푸드를 통해 진도수협, 서진도농협, 바다물산, 창해수산, 두성재단 등 5개 업체의 잠곡, 진도 꽃게, 곱창김, 울금누룽지, 젓갈, 흑미, 조미김 등이 수출·판매될 예정이다.

진도군의 이번 협약은 호주 수출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군은 지난 6월 호주 시드니와 혼스비로 진도 꽃게, 곱창김, 진도쌀 등 5톤 가량의 진도 농수산물 첫 수출해 시드니 소재 프리지엄 마켓과 서울마트에서 오는 13일(일)까지 판촉행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5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행사 전 현지 언론 광고 등을 통한 활발한 홍보와 행사장 내에서 시시행사를 진행하는 등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가간 중 진도 농수산물의 홍보를 위해 호주를 방문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업체와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호주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우흥섭 진도부군수는 "이번 판촉행사와 협약을 계기로 진도 농수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최근 K-culture의 영향으로 한국식품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수한 진도 농수산물을 이용해 해외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로 확보로 농어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의 수출 촉진 활동이 기대된다.

진도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주)농심 계열인 미국의 (주)메가마트 애틀랜타점 등으로 진도 쌀과 김 등을 수출·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도=조성용기자



### ‘청정자연, 여름향기 가득’ 망골 해남 캠핑명소 4선

해남군은 지난 6월부터 캠핑가 대어 여행상품인 '해남'으로 가는 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망골마을 송호바다가 한눈에...망골오토캠핑장

망골마을 송호해수욕장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에는 망골마을 관광을 겸한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늑한 해송 숲에 서남해 바다를 조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은 아름다운 전경과 최상의 부대시설로 캠핑족들 사이에서 일찌감치 입소문이 난 캠핑 명소이다. 오토캠핑 사이트가 50면, 캐러밴이 18대 갖춰져 있다.

#### ◆자연 속 힐링의 공간, 망골향토나라테마촌

송호리 해수욕장 인근의 망골향토나라테마촌도 오토캠핑리조트로 사랑받는 곳이다.

차량을 정박해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존 26면과 소나무 숲속에 자리 잡은 숲속텐트존 30면이 조성돼 있다.

또한 천연잔디구장과 넓은 수변 생태공원을 비롯해 향토문화체험관 등 편의공간과 휴식공간도 두루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 ◆대세는 숲캉스, 흑석산 자연휴양림

산림 휴양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흑석산 자연휴양림에도 야영시설이 마련돼 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조용한 숲속에 들어앉은 숲속의 집 숙박시설이 유명하지만, 야영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조용한 여행을 즐기고 싶어 하는 캠핑족들이 즐겨 찾고 있다.

테크 시설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문을 연 50ha 규모 치유의 숲 등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곳, 오시아노 관광지

화원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는 요즘 가장 핫한 캠핑장으로 꼽힌다.

해변을 인접해 200여면에 이르는 오토캠핑 시설과 함께 레저체험장, 바다분수,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있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완비됐다.

여름 성수기에는 각종 이벤트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으로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더욱더 인기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말복 찾아 돌아왔다!...‘강진 회춘탕 밀키트’ 재출시



### 50개 한정 판매 돌입

강진군이 말복을 맞아 강진 대표 음식인 회춘탕을 한정판 밀키트로 재출시한다.

군은 지난달 21일, 중복을 맞아 처음으로 50개 한정판매를 한 결과, 3시간이 채 안돼 품절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첫 출시 직후 여름 삼복더위의 보양 음식은 물론 영양식으로 입소문을 타며, 구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에도 선착순 50개 한정으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판매된다.

회춘탕 밀키트는 지난 번과 동일하게 1인 용으로 포장돼 15,000원에 판매되며, 간기능 회복과 당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엄나무를 비롯해 헛개나무, 느릅나무, 당귀, 가시오가피, 찹, 뽕나무 등 11가지 한약재로 진하

게 우려낸 육수와 건더기(닭고기, 문어, 전복, 수삼, 대추), 녹두밥 3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재출시되는 회춘탕은 기존 제품보다 육수에 있는 기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진하게 우려내 더 건강하고 담백한 맛으로 고객을 만난다.

회춘탕 밀키트는 작전면에 위치한 '황금 들 식육식당'에서 공급하며, 이곳은 강진군 대표 먹거리인 회춘탕을 2014년에 인증받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지역의 맛집이다. 구매는 온라인 '초록민음 강진군 직거래지원센터'(https://www.gangjin.center/)에서 가능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밀키트 출시로 식당을 방문해, 회춘탕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맛볼 수 없는 강진을 대표하는 건강식을 밀키트로 간편하게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군, 금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중

### 175억 투입 해조류 거점 공간 및 특화 거리, 수변공원 등 조성

완도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22 도시재생 뉴딜사업(특화재생형)」 공모에 선정돼 '금일읍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75억 원(국비 105, 도비 17.5, 군비 52.5)을 투입해 전

국 대비 70% 이상의 다시마를 생산하는 금일읍에 해조류 6차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자원 부가가치 확대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조류 거점 공간'을 건립하고 전국 유일의 다시마 특화 브랜드를 만들

어 금일 다시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해조류 거점 공간'(가칭 해빔센터)은 금일읍 화목리에 연면적 2,300㎡ 규모로 조성되며, 해조류 판매 전시장과 해조류 기반 특화센터 및 상가 등이 들어선다.

'해조류 거점 공간'이 조성되면 다시마 등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 확대에 주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입 시설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공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일읍 상권 지역에 '특화 거리'도 조성한다.

'특화 거리'는 금일읍사무소 인근 거점 골목 4개소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및 경관을 개선하여 낙후된 상권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